



뽀 게임 금 노리는 '얼짱 자매'

12일 서울시 노원구 태릉선수촌에서 당구 국가대표 차유람(왼쪽)과 차보람이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열린 미디어 행사에서 멋진 동작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차우찬〉 〈히메네스〉

## 사·생·결·단

삼성-두산 오늘 대구서 PO 운명의 5차전

### 차우찬-히메네스 선발대결

프로야구 삼성 차우찬(23)과 두산의 켈빈 히메네스(30)가 소속 팀의 한국시리즈 진출을 놓고 운명의 에이스 맞대결을 펼친다. 선동열 삼성 감독과 김경문 두산 감독은 두 선수를 13일 대구구장에서 열리는 플레이오프 5차전의 선발 투수로 예고했다. 차우찬과 히메네스는 1, 2차전에서 나란히 선발로 나와 팀의 마운드를 이끌었다. 차우찬은 지난 7일 1차전에서 4이닝 동안 5실점했고, 히메네스는 7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삼성 타선을 잠재우며 승리투수가 됐다. 이번에는 양팀 사정이 더욱 절박한 상황에서 선발로 나선 차우찬은 1, 2차전에서 나란히 선발로 나와 팀의 마운드를 이끌었다. 차우찬은 11일 4차전 5회 무사 1루에서 마운드에 올라 정수빈과 오재원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세 타자를 완벽하게 막는 등 구위가 살아나고 있다. 다만 이날 11개의 공을 던진 차우찬은 5차전 체력적인 부담을 떨쳐야 한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히메네스는 이번 시즌 부동의 에이스로 두산의 마운드를 이끌었다. 연례 사슬을 끊는 등 중요한 때마다 핵심 투수 노릇을 톡톡히 했다. 무려 15차례나 퀄리티스타트를 작성했고 평균자책점은 3.32밖에 되지 않는 나 던진 탓에 급하게 5차전 선발로 호출됐다. 히메네스는 다시 한번 호투를 펼쳐 두산에 한국시리즈 티켓을 쥐어줄 책임을 안았다. 또 두 선수의 맞대결은 양팀의 실질적인 에이스가 자신들 싸움을 펼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

# 광주일고 하키 2년 연속 금빛 스틱

경기도 대회 9연패...광주 14위·전남 10위



2010 경상남도 제91회 전국체전

광주일고 하키부가 전국체전 2연패에 성공했다. 광양제철고 축구부는 승부조작 논란을 딛고 우승을 차지했다. 제 91회 전국체전 마지막날인 12일 광주 일고가 김해하키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경남대표 김해고를 5-2로 꺾고 고등부 하키 2연패를 달성했다. 올해로 창단 50주년을 맞은 광주일고 하키부는 성남시장기와 전국종별하키선수권에 이어 전국체전을 우승으로 장식하며 광주 하키의 자존심을 지켰다. 방호진 감독대행 체제로 전국체전에 출전한 광양제철고도 문산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고등부 축구 결승에서 서울 장흥고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벌인 끝에 5-4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0-0으로 전·후반을 마친 양팀은 승부차기로 우승컵의 향방을 갈랐다. 4-4의 상황에서 장흥고 다섯번째 키커의 실축이 나온 뒤 광양제철고의 김강현이 골을 성공시키며 피말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축구 남대부 광주 대표 호남대는 건국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0-2로 패해 은메달을 추가했다. 전남은 수구에서도 강원체고를 12-8로 누르고 대회 마지막날 단체전에서 두 개의 금메달을 가져갔다. 남고부 배구 결승전에서

는 별교제일고가 전북 남성고와 5세트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지만 2-3으로 저 은메달에 만족했다. 북성 김준식(호남대)은 광주에 대해 마지막 금메달을 안겨줬다. 대학부 웰터급에 출전한 김준식은 서울대표 김귀영을 4-2로 꺾고 지난해에 이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도 고등부 라이트헤비급과 대학부 밴텀급에서 금빛 편지를 날렸다. 박순(전남체

육고)과 성동현(한국체육대)은 각각 경북과 경남대표와의 대결에서 금메달을 가져가며 대회 마지막날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광주와 전남은 이날 막판까지 구기종목 등에서 금빛 레이스를 펼쳤지만, 지난 대회와 마찬가지로 종합 순위 14위와 10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39개 종목에 1231명의 선수단이 출전한 광주주는 금 32, 은 40, 동 47개를 수확하며 14

위를 지켰다. 44종목에 1632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전남은 금 47, 은 36, 동 69의 성적으로 10위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전국체전 9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여자 수영 일반부 배영 50·100m에서 한국신기록을 갈아치운 2관왕 이주형(경남체육회)과 일반부 접영 200m와 개인혼영 200m에서 역시 한국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3관왕 최해라(오산시청)가 이번 대회 공동 MVP에 선정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나주시청 사이클팀 전국 최강

금 5 은 2 동 1...전 종목 메달 획득 '기염'

나주시청 사이클팀(감독 양재환)이 12일 막을 내린 제91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 5, 은 2, 동 1개의 메달 레이스를 펼쳐 2년 연속 전국체전 전 종목 메달 획득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특히 나야를(금 4, 은 1)과 이은지(금 2, 은 1, 동 1)는 국가대표라는 명성에 걸맞게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5개를 합작, 팀을 전국 최강의 자리에 올려놨다. 나주시청 여자 사이클팀은 지난 1991년 창단 이래 출전한 전국 단위 모든 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입상, '스포츠 도시'를 지향하는 나주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다. 한국 여자사이클 기대주 나야를은 고교시절부터 이번 대회까지 전국체육대회에서만 17개의 금메달을 획득, 다가오는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동반 출전하는 이은지와 함께 금메달 기대주로 평가 받고 있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이날 오전 사이클 선수단을 격려(사진)하는 자리에서 "전국대회에서 나주를 빛낸 선수들에게 시민과 함께 축하한다"면서 "스포츠의 성적은 선수들이 흘린 땀과 비례하는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속에 국가와 지역의 명예를 떨칠 수 있도록 분발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 프로야구 내년 시즌 4월 2일 개막

KIA 흡서 삼성과 개막전

KIA 타이거즈가 내년 4월2일 안방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2011시즌 개막전을 갖는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2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2010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내년 시즌 개최 날짜와 광저우 아시안게임 예산 등을 의결했다. 이사회 의결에 따라 2011 정규시즌은 4월 2일 개막해 133경기를 치르는 6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가게 됐다. 개막전은 2009시즌 최준순위에 따라서 1-5위, 2-6위, 3-7위, 4-8위가 맞붙게 돼 한국시리즈 우승팀인 KIA 타이거즈가 5위팀 삼

성과 무등경기장에서 시즌 첫 경기를 벌인다. 2009년 2위 팀인 SK는 벡스코 문학구장에서 만나고, 두산은 LG를 잠실로 불러들인다. 롯데는 한화와 사직구장에서 개막전 대결을 벌인다. 정규 시즌의 구체적인 일정은 이날 중 발표된다. 개막날짜를 확정된 KBO는 또 내달 12일 개막하는 광저우 아시안게임 예산안으로 11억3200만원의 승인·의결했다. 내년 프로야구 30주년 기념행사와 사업 등을 기획, 추진하기 위한 '프로야구 30주년 기념 사업위원회'도 구성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무인텔 필**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m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